
KREI리포터 제주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일 시: 2020년 11월 4일(수) 12:30~15:00
- 장 소: 제주 서귀포시
- 참 석: 총 16명
 - 원 내: 황의식 부원장, 허정희 연구기획평가팀장, 김미리 주무원
 - 원 외: (KREI리포터) 강창용, 고권진, 고정식, 고정홍, 김상우, 김애자, 김종우, 양혜숙, 오인자, 현동석, (현지통신원) 함상원, 이시영, 양애숙

2. 주요 내용

1) 3기 회원선정 결과 공유

- (목적) 2기 위촉 기간('17.6.16.~'20.6.15.) 종료에 따라 회원 재구성 필요
- (위촉기간) 2020년 6월 16일 ~ 2023년 6월 15일(3년)
- (선정) 2기 회원 117명, 신규회원 90명 등 3기 회원 총 207명 선정

2) 3기 리포터 운영계획 논의

- 지역별 간담회 추진
 - (목적) 3기 발대식 및 연찬회를 대체하여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
 - (시기) 지역별 그룹을 나누어 연구원에 초청 또는 현지 방문
 - 제주지회 간담회(11.4.), 전북·전남지회 연합간담회(11.23.) 개최 예정
 - (내용) 연구원 소개 및 리포터 활동 안내, 관심 분야에 대한 토론 등
- 농심소통(農心疏通) 아카데미 추진
 - (목적) 농업·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연구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연구원과 현장 상호 간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

- (운영) 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역간담회 추진
 - 리포터를 강사로 초청하여 농업·농촌 현장 이야기, 영농 사례에 대해 발표
 -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자와 간담회 진행

○ 삶의 질 정책모니터링 역할 강화

- (목적) 현장 단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 발굴 및 피드백 강화
- (구성) 전문가(지자체 담당자, 현장 활동가), 농어촌 주민(KREI리포터)
- (운영) 삶의 질 관련 현장의견 수집, 설문조사 수행, 심도 있는 토론 진행

3) 제주지회 임원진 선출

- (목적) 리포터 3기 출범에 따라 임원진 신규 선출
- (대상) 지회장 1인, 총무 1인

임원	전임	신임	임원	전임	신임
지회장	고정흥	오인자	총무	김애자	양혜숙

4) 신규회원 소개

- 양혜숙: 체험·휴양형 목장인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를 운영하고 있음. 한라산 중턱 해발 400m에서 젖소들을 방목시켜 키워내 직접 원유를 생산하고(1차), 생산한 원유를 이용하여 직접 유제품을 만들고(2차), 만든 유제품을 판매하고 낙농체험목장을 운영해(3차) 나가고 있음. 농촌과 관광이 어우러져 제주 6차산업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음.
- 김종우: 17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다 고향에 내려와 한라봉 및 노지

감귤을 재배하고 있음. 관행 농업이 아닌 농업과 IT산업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접목될 수 있는 벤처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차별화된 농업(1.5차 농업, 타이백농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감귤경쟁력 강화 혁신연구단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한라봉 특화사업단 및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5) 제주지역 현장여론

- 강창용: 1) 연구원에서 보내온 현장여론 주제는 설문 형식이 대부분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음. 2) 농업인이 연구자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나 지역 현황 등 영농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농심소통 아카데미’가 좋은 취지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됨. 특히 본인은 유기농업을 수년간 연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음. 가능하다면 1:1 인터뷰 형식이 아닌 주제발표 등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음.

⇒ 현장여론은 기타 개선의견을 주관식으로 듣고 있으나, 설문 이외 좋은 참여방법 등을 고민하여 개선해보겠음. 또 ‘농심소통 아카데미’를 통해 리포터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 현동석: 제주농업기술원과 농경연 간 감귤 관측에 차이가 있음. 전망에 따라 감귤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부분인데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쉬움.

- 강창용: 관측에 활용하는 샘플은 몇 호 정도가 되며 샘플링은 주기적으로 하는지 궁금함.

⇒ 본원에서는 기술원과는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망하고 있음. 때문에 기관 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함. 또 모든 통계조사가 그러하

듯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분명 실제 생산량과는 차이가 있어 관측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 이 점에 대해 농업관측본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감귤 관측 표본농가는 약 300호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표본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고정홍: 제주도는 생산원가 대비 물류비 비중이 매우 큼. 물류비가 크게는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음. 판매자, 소비자에게도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며, 이는 택배직원이 아닌 택배사의 이익만으로, 물류비 지원방안 자체는 택배사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봄. 택배 종사자 또는 농업인에게 혜택을 줘야 마땅할 것임.

- 고권진: 제주도를 들어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 농경연에서 소관 분야가 아니고 당장 정책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농업인들을 대변하여 이 같은 사례를 언론이나 정부에 적극 알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해상물류 지원체계는 현재 국토부 소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농업 분야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음.

- 고권진: 현재 키워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농정원 등 정부에서 스마트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것 같음. 다만 센서 자체의 성능이 좋지 못해 이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기에는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됨. 스마트팜 농가 확대 이전에 센서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부에서도 센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점진적인 기술 발전과 활용 등 좀 더 시간을 두고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강창용: 올해 9월부터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음. 도심지역에서는 참여율이 크나, 농촌 지역에서는 정보가 늦

고 특히 제주지역은 농번기가 달라 참여율이 많이 저조함. 지역 특성과 관련 없이 일괄적인 시기와 사업, 홍보 등에 아쉬움이 큼.

⇒ 농촌 삶의질에 대해 농림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연구원에서도 아울러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음, 특히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는 농촌에 소외되는 부분을 의견 접수받고 있음.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음.

- 김애자: 제주는 11월에 들어 한창 바쁜 시기임.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끼리 조합을 구성해 요즘에는 담합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인건비도 올리는 실정임. 농업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 눈치 봐야하고, 브로커에게 웃돈도 줘야 하고 문제가 많음. 불법체류자를 고발하고 퇴출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관리하고 활용할 정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브로커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나 농협이 근로자를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현동석: 제주지역 감귤은 상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큼. 올해는 감귤 생산 65~70%를 상인들이 사들이고 그들이 일손을 잡아 독점하는 분위기임. 농업인이 상인에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 농협이나 생산자조합에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임.

- 고권진: 외국인 근로자 인력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차단되어 발떼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음.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력공급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농업 부분 할당이 적다는 의견이 많음. 계절적 근로가 많아 3개월만 일하기 위해 오고 가는 비용 문제 등 아직 고려될 부분이 많음.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해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음.

- 김중우: 농정원에도 리포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패널이 있음. 각 지역에 패널을 모아서 매월 15일 주제를 선정해 카톡으로 전달하고 실시간 의견을 받고 있음. 또 지속적으로 시스템이나 제도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음. 건의내용 중 좋은 의견을 선정해 12만 원씩 사례를 해주고 있음. 연구원에서도 리포터를 활용해 피드백을 받아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농업인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 또 연구원도 그에 맞는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농경연에서 실시하는 ‘농업관측’에 대해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위주로, 농업인도 접근하기 좋게, 매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